

경주 신라왕경 복원·정비 사업에 대한 검토

김형석* · 심우경**

*고려대학교 대학원 환경계획 및 조경학 전공 · **세계상상환경학회

I. 서론

천년고도로 알려진 경주는 삼국을 통일하여 한국문화의 원류를 이룬 장소적 상징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유산의 발굴, 복원 및 정비는 소홀하게 취급되어온 결과, 세계 최고수준의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천년왕도에 걸맞는 왕경 모습을 갖추지 못해 역사도시로서의 정체성이 미흡한 곳으로 머물러 있다.

월성을 중심으로 하는 왕경지역에 많은 유적이 분포되어 있지만, 대부분이 발굴 후 복토된 상태로 보존되고 있거나 발굴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경주시, 2014: 5).

천년왕도 경주에는 현재 왕궁은 없고 다수의 고분만이 산재한 경관을 연출한다. 로마, 시안, 교토 등 세계 유수의 고도들은 범 정부적 차원의 복원사업이 진행 중이며, 2015년 시작된 경주 신라왕경 복원사업은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의해 추진되다 중단되었고, 현 정부의 공약사항으로 추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신라왕경 복원정비 사업을 검토하고 개선방향과 향후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잠재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II. 신라왕경 핵심 유적의 복원·정비 현황

현재 세계유산 경주의 5개 지구 중 월성지구, 황룡사지구, 대릉원지구를 중심으로 가시적인 신라왕경의 모습을 찾기 위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핵심사업으로 월성, 황룡사, 동궁과 월지, 일반사업으로 월정교, 쪽샘지구, 대형고분, 신라방, 첨성대 주변 일원을 중심으로 신라왕경 복원·정비사업이 시작되었으며(표 1 참조), 8개 개별사업 위에 신라왕경 전체를 유기적으로 연계시키는 종합적 계획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러한 신라왕경 복원정비 사업에 반대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고증 부족과 확실한 원형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무리한 사업이라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일부 유적은 최대 40년에 걸쳐 발굴조사 및 심화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왕경의 원형은 신라 때의 설계도면이 발견되거나 그 시대의 장인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복원정비가 곧 유적과괴라는 논리로 반대한다면 문화재 복원정비 사업이라는 것은 성립할 수 없으며, 복원이라는 어원을 내세워 복원을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것이다. 현 시대에서 복원은 중수(重修)나 재현(再現)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도심 전체가 고도로서의 역사적 실체의 가시화가 부족한 상황에서, 경주가 역사문화도시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도 내에서 유적의 가시화 작업은 필수적이다.

III. 복원·정비 사업의 세부사항 검토

1. 역사적 골격 회복

- 1) 유적의 실체를 확인 및 역사적 흔적을 가시화: 월성의 부분적 복원, 동궁과 월지 골격회복(일부 건물 노출), 황룡사지 유구 가시화, 신라방(신라 도시구조 가시화 및 정비), 첨성대 주변 정비, 통합 고분공원 조성, 월정교 복원 및 주변정비
- 2) 옛길, 물길 회복: 월성, 황룡사 해자 단계적 복원, 동궁과 월지 물길 찾기 및 복원 후 연계, 옛길 회복을 통한 주요 유적 연계(자전거도로와 보행동선 연계)
- 3) 단절된 유적의 통합(유적의 유기적 연계): 점진적 신라왕경 핵심유적 통합(성격 및 권역별 통합-왕궁권, 고분권 등), 순환 및 녹색 교통체계 및 대중교통 관리지구 구축, 단절된 유적 회복(동해남부선, 7번 국도, 기타 유적지 통과도로 축소 및 노선 조정)

2. 역사문화환경 개선 및 활성화

- 1) 월성: 경관회복을 위한 기준수목 선별 및 제거, 기 발굴된 해자와 성벽을 연계함으로써 경관 이미지 제고, 월성 성문 중 동궁과 월지로 연결되는 동문을 우선 복원
- 2) 동궁과 월지: 고증에 의하면 현재 도입되지 못한 수종이 많음(잣나무, 굴피나무, 오리나무, 밤나무, 상수리나무), 구진천의 고사와 관련된 뽕나무 복원도 포함, 월지의 나무 귀틀을 복원하여 식재 및 수경관 관리방안 모색, 현재의 울책을 전통담장으로 교체
- 3) 월정교: 월성 및 교촌 한옥마을과 조화되는 경관조성, 남

표 1. 신라왕경 복원·정비사업의 주요 현황과 정비계획

구분	주요 현황	정비 방향
역사유적지 및 주변지역	· 고도로서의 역사적 실체 가시화 미비 · 특정시기, 특정 유물에 대한 보존정비 위주의 사적 관리로 역사적 골격 및 유적의 입체적 가시화 미비	· 고도의 골격을 나타낼 수 있도록 부분적 가시화를 통한 골격 회복 · 왕경 이미지 부각 및 고분 이외에 중요 건물터, 방리제 유구 등을 정비복원하여 신라왕경 구조를 가시화하도록 함
동선	· 일제강점기 도시계획에 의해 유적지의 단절 및 왜곡 초래 · 대상지 내 보행체계 미흡과 유적지간 연계동선 보완 필요 · 도로에 의해 유적지의 연계가 차단되고, 접근성 저하로 인한 도심지역 낙후	· 비정상적 도시계획 도로에 의해 단절된 유적지 통합 및 유적지 경계부의 원상 회복 · 대상지 내 보행체계 구축과 유적간의 다양한 연계동선 조성 · 대중교통 인프라 시스템 구축(대중교통관리지구, 순환교통체계 등)
토지	· 전체 사업부지 중 일반상업지역, 일반주거지역, 완충녹지지역 잔존 · 주요 유적지와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부조화	· 주요 핵심유적과 성격에 맞지 않는 주변 토지이용 전환 필요 · 전체 유적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자연녹지지역 혹은 공원으로 전환 필요
경관	· 보존 위주의 정책으로 신라왕경으로서의 인지도 미약 · 유적지 주변 경관저해 시설 일부 산재 · 자연조망축이 고밀도 개발에 의해 차단되어 고도의 공간적 골격을 형상화시키지 못하고 있음	· 신라왕경의 원형회복 및 연계를 통한 고도의 공간적 경관 형성 · 유적의 개별적 특수성과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고려한 경관계획 · 대상지 주변의 불량 경관요소 정비를 통한 역사문화경관 창출 · 유적지별 관람편의시설 확충과 정비계획
시설물	· 편의부대시설 부재 및 정체성 부족 · 유적정비에 따른 연계성 부족과 통합적 디자인 계획 필요 · 유적 전체의 전시, 홍보 등을 위한 종합전시홍보관 부재와 개별 유적의 전시홍보시설 검토	· 신라왕경의 정체성 표현 및 역사유적과의 조화로운 통합디자인 제시 · 개별 유적의 연계성을 바탕으로 한 편의부대시설 배치계획 · 이용객 수요, 편의 및 필요공간의 위치와 상황에 맞는 시설물 계획 · 전시홍보시설의 통합 및 합리적인 건축계획유도

자료: 경주시 내부자료

천 주변정비, 신라 옛길 복원(월정교~월성~첨성대)

- 4) 첨성대 주변: 첨성대 경내에 관목류 또는 초화류 식재, 첨성대에서 동궁과 월지 탐방로를 곡선으로 정비(화목류 식재)
- 5) 황룡사: 기 발굴유구 가시화 및 복원, 황룡사지 주변의 신라 옛길과 물길을 복원하여 경관조성
- 6) 신라방: 방리제 흔적을 보여주는 유구 정비(왕경의 도시구조 확인), 옛길과 물길을 재현(역사경관 연출), 접근로인 입해로를 보행자전용으로 전환(녹음 터널)
- 7) 대형고분: 고분공원의 내외적 경관을 고려한 조경 및 시설물 정비, 고분군들을 조망할 수 있는 조망공간 조성, 사계절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수목 식재와 화단 조성
- 8) 쪽샘지구: 옛 골목길 복원(마을 철거 전의 골목길), 시내~첨성대~동부사적지 보행동선 연결

3. 역사문화자산 가치 및 활용도 재정립

- 1) 도시 고고유적의 보존 및 관리방법의 개선, 발굴과정의 전시 및 홍보로 고도의 역사적 골격 부각 및 관심유도
- 2) 이야기 중심의 역사문화자산 연계, 디지털 기술 활용(홀로그램, 가상현실, 디지털 형상화, 프로젝션 맵핑 등)

IV. 검토 및 고찰

현재의 경주는 역사도시도 관광도시도 아닌 보존과 개발이 상충하는 지방 소도시이다. 따라서 어떻게 보존과 개발이 하나가 되도록 하는가가 중요하다(김영대, 1993: 105).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신라왕경 복원·정비사업의 핵심은 고도로서의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실체의 가시화, 즉 불

거리에 있다. 비록 완벽한 고증은 어렵지만 발굴 후 복토하여 정비하는 식의 패턴으로는 경주의 도시 상징성을 가지기가 어렵다.

본 사업이 복원·정비 사업이지만 해당지역 건물의 100% 복원은 어렵고, 대표적인 건물군을 복원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정비사업으로 조경분야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해야할 부분이다.

과거 60~70년대 경주관광종합개발사업이 관광단지 조성 위주의 사업이었다면 이번 사업은 왕경의 모습을 가시화하고 고도의 경관 조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2015년 본격적으로 시작된 신라왕경 복원·정비사업의 필요성과 세부내용을 검토하여 고찰하고자 하였다.

신라왕경 복원·정비사업은 총 8개 지구로 나누어 시행되고 있으며, 발굴·복원·정비·활용까지를 포함한다. 이 사업의 가장 큰 목표는 유적의 실체를 가시화시키는 것이지만 점적인 건물의 복원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적지 주변 정비는 조경분야에서 담당해야할 분야이다.

과거와 같이 관광단지 위주의 사업이 아닌 진정한 역사문화도시 경주의 밑그림이 될 신라왕경 복원·정비사업을 시작으로 왕궁, 황룡사 지구를 중심으로 한 신라문화경관 복원에 이어 경주의 산, 하천과 같은 자연경관과 문화경관을 발굴하여 경주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일 또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경주시(2014) 신라 왕경 복원·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 연구용역. 경주: 경주시.
2. 김영대(1993) 역사도시 경주의 문화경관 회복과 도시설계 접근방향 - 시각경관론을 중심으로. 경주문화 2.